

# 唐代 詩人의 物候意識과 그 詩的 表現 研究\*

姜 熙 安\*\*

## <목 차>

1. 서 론
2. 物候意識의 기원
3. 당대 시인의 物候意識
  - 3.1 試帖詩에 나타난 物후
  - 3.2 物후의식의 유형화
  - 3.3 투영된 物후의식
4. 결 론

## 1. 서 론

唐代 詩人의 네 季節에 대한 이해는 자연과 생태 환경을 이해하는 주요한 한 경로였으며, 때로 歲時와 함께 인간과 자연을 통합하여 인식하는 경로이기도 하였다. 특히 당대는 농경 사회였기에 계절의 추이를 알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긴요한 일로 여겨졌다. 이는 자연의 질서(道)를 파악하여 인간의 활동에 적용하고자 하는 철학적 사유와도 이어져 천문과 지리를 아는 것을 지식인의 기본적인 자질로 여겼고, 그 결과 네 계절에 따른 기후와 동식물의 변화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중국 고대 문학에서 季節과 歲時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많으며, 천문과 기상, 동물과 식물의 변화에 대해서도 풍부한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培材大 周時經教養大學 基礎教育部 副教授(kangpoet@hanmail.net)

자료를 축적하였다. 계절에 따른 자연에 대한 묘사는 《詩經》 이래 兩漢 魏晉 南北朝 시기에 辭賦와 詩에서 늘어났고, 晉宋 시기에 山水詩가 확립되면서 이후 중국 고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에 편입되어 계절에 대한 표현과 미감은 더욱 풍부해졌다.

계절에 대한 주의와 자연에 대한 관찰은 뿌리 깊은 문화가 되어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공통의 문화가 되었다. '24節氣'는 《高麗史》에 중국의 《漢書》 내용을 그대로 轉載한 것에서 볼 수 있듯 고대부터 동아시아에서 공유한 계절의 순환 의식을 나타낸 24개의 매듭이라 할 수 있다. 또 <月令詞>나 <四時歌> 등의 노래가 있어 계절 감각을 반영하였다.

'24절기' 중에 春夏秋冬의 글자가 들어간 말만 해도 立春, 春分, 立夏, 夏至, 立秋, 秋分, 立冬, 冬至 등이 있다. 이처럼 춘하추동 글자가 들어가 계절을 직접 나타낸 詩語는 상당히 많다. 예컨대 春 자가 들어간 어휘만 해도 春江, 春山, 春雨, 春花, 春風, 春草, 春川, 春眠, 春水, 春夢, 春鳥, 春蘭, 春日, 春夜, 春樹, 春潮, 春酒 등이 있으며, 여기에 春情이란 말까지 덧붙여도 모두가 詩情이 넘치고 함의가 깊다. 봄을 나타내는 어휘는 생명의 활력을 연상시키므로 그 자체가 시적 정취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더하여 春夏秋冬이란 글자가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는 더욱 많다.

주나라 조정에서 반포하는 政令의 일종인 '月令'에서 시작된 계절에 대한 인식은 '24節氣'로 발전하였고, 24절기의 각 절기를 다시 세 候로 나누어 만들어진 '72候'도 秦漢 교체기에 확립되어 자연에 대한 인식은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이는 농경에 필요한 정보이자 자연과 계절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인식으로 양한 위진남북조를 거쳐 당대에 이르면서 시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에 반영하였다. 당시에 반영된 계절과 관련된 자료를 읽어가면서 당대 시인들은 '物候意識'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물후의식이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하나의 경로였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본고는 당대 시인의 물후의식이 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당대 시인들의 계절 감각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여

당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의 지리, 역사, 철학, 우주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기본적인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는 시도라 본다.

## 2. 物후의식의 기원

‘物候’는 사계의 순환에 따라 달라지는 동식물의 생태적 변화를 가리킨다. 사계의 순환은 주로 천문과 기상, 동물과 식물의 변화와 관련되며, 이는 한해를 단위로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禮記》<夏小正>은 비록 불완전한 텍스트이지만 物후에 대한 가장 초기의 저작에 해당한다. 또 《禮記》<月令>도 物후에 관련된 본격적인 텍스트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呂氏春秋》<十二紀>와 《淮南子》<時則訓>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物후는 기후와 생태의 변화를 기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 활동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농업 활동에 아주 유용하였다. 이러한 저작은 역대로 계속 이어졌다. 때문에 ‘월령’이란 말은 당대 이후에는 ‘物후’와 유사한 말이 되었다. 이밖에 다른 저서에도 物후 관련 기록이 자주 보인다. 예컨대 《尚書》<堯典>에서는 동물의 털갈이로四季와 대응시켰고, 《詩經》<七月>에선 달마다 다른 특징적인 物후를 노래하였다.

物후 현상을 집중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네 계절을 언급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아래 자료를 보자.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네 계절이 운행하며, 만물이 생길 뿐이거늘,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天何言哉?)<sup>1)</sup>

—《論語》<陽和>

1) 楊伯峻, 《論語譯注》, 北京: 中華書局, 2009.

하늘과 땅이 바뀌어 네 계절을 이룬다.(天地革而四時成.)<sup>2)</sup>

—《周易》<革卦>

지혜로운 자가 양생할 때에는 반드시 네 계절에 순응하여 한서를 조절하고, 희노(喜怒)를 조화시켜 거처를 편안하게 하고, 음양을 조절하여 강유를 조화시키는 데, 이와 같이 하면 사기가 이르지 못해 오래 살 수 있다.(智者之養神也, 必順四時而適寒暑, 和喜怒而安居處, 節陰陽而調剛柔, 如是僻邪不至, 長生久視.)<sup>3)</sup>

—《黃帝內經》<本神>

공자는 계절의 운행과 만물의 영고성쇠를 변함없는 순환으로 주목하고 있다. 《주역》에서는 陰陽과 寒暑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계절의 순환을 주목하고 있다. 《황제내경》에서는 자연의 질서를 파악하여 이에 적응하여 사는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사기를 막고 장수하는 길이라 하였다. 이처럼 四季를 관찰하고 이를 인간 사회에 적응하려는 노력은 부단히 지속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농경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네 계절의 변화가 천문과 기상, 동식물의 생태, 농경과 생활이 하나로 연결되는 실용적인 측면으로 나아갔다. 아래의 자료를 보자.

밤낮의 길이가 같고 鶉火星이 남중하는 때로 중춘을 정하라. 그리하면 백성들은 들로 나가 흙여져 농사를 짓고 짐승들은 새끼를 낳고 번식할 것이다.(日中鳥星, 以殷仲春. 厥民析, 鳥獸孳尾.)<sup>4)</sup>

—《尚書》<堯典>

중춘의 달에는 해는 奎宿에 있으며, 저녁에는 弧星이 남중하고 새벽에는 建星이 남중한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복숭아꽃이 피기 시작하며, 피꼬리가 울고, 매가 변하여 비둘기가 된다.(仲春之月, 日在奎, 昏弧中, 旦建星中. ...始雨水, 桃始華, 倉庚鳴, 鷹化爲鳩.)<sup>5)</sup>

—《禮記》<月令>

2) 黃壽祺, 《周易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3) 龍伯堅 編, 《黃帝內經集解》,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4.  
 4) 江灝 等 譯注, 《今古文尚書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2.  
 5) 楊天宇, 《禮記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상서》에는 중춘, 중하, 중추, 중동에 대해 서술하였고, 《예기》〈월령〉에는 1년 12개월의 천문과 기후, 의례와 농경 생활 등이 서술되어 있다. 《예기》〈월령〉의 내용은 《여씨춘추》〈십이기〉와 《회남자》〈시칙훈〉에도 실려 있다.

月令이란 12개월을 순서에 따라 매달 별의 운행과 기후 및 기온의 변화, 동식물의 생태 등을 기록하고, 이에 상응하여 생산 활동과 월중 행사를 하달한 政令이다.<sup>6)</sup> 孟春之月の 부분을 보면, 태양은 이십팔수 가운데 室宿에 운행하고, 황혼 때 남중천에 參宿가 위치하며, 동틀 때 尾宿가 남중천에 나타난다. 이 시기에 동풍이 부드러워지고 얼음과 눈이 녹는다.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은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한다. 물고기들은 얼음 조각이 있는 수면 가까이 떠올라 헤엄치고, 기러기가 남방에서 날아온다. 초목들은 생기를 띠기 시작한다. 왕은 춘경을 준비하라 명하고 지역에 따라 오곡을 파종한다. 이 시기에는 벌목을 금지하며 새 동지의 알 채취를 금지하여 나무와 새 새끼의 성장을 보호한다.

이러한 월령은 진한 교체기에 24節氣와 72候에 결합되어 보다 체계적인 모습을 갖춘다. 24절기는 태양이 황도 위에 보이는 위치에 따라 정하므로 황도를 24단락으로 나누어 보는 것과 같다. 때문에 각 절기와 절기 사이는 15도가 되고, 태양(사실은 지구)이 15도 움직일 때마다 절기가 바뀐다. 24절기는 태양력에 속하므로 지금의 양력으로 볼 때 매년 거의 같은 날에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음력은 윤달을 끼워 태양력에 맞추고 있으므로 추석이나 설날은 매년 날짜가 달라 전년에 비해 11일 늦어지며, 윤년이 있으면 전년에 비해 19일 정도 앞당겨진다.

24절기의 각 절기는 15일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세 단락으로 나누어 5일씩 ‘候’를 넣어 72후를 만들었다. 72후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전국시대 말기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逸周書》〈時訓解〉이다.<sup>7)</sup> 이중 봄의 경우만

6) 楊天宇, 《禮記譯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계동의 달에) 천자는 공경대부와 함께 나라의 법전을 바로잡고, 네 계절의 정령을 논하여, 오는 해를 차질없이 대비한다.” ([季冬之月], 天子乃與公卿大夫共飭國典, 論時令, 以待來歲之宜.)

7) 黃懷信 集注, 《逸周書彙校集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24절기와 72후를 대응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계절	월	24절기	양력	72후
孟春	1월	立春	2월 3~5일	초후 : 동풍이 얼음을 녹인다. (東風解凍) 2후 :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다. (蟄蟲始振) 3후 : 물고기가 얼음장 가까이 올라오다. (魚上冰) <sup>8)</sup>
		雨水	2월 18~20일	초후 :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 늘어놓다. (獺祭魚) 2후 : 기러기가 북으로 날아가다. (候雁北) 3후 : 초목에 싹이 나기 시작하다. (草木萌動)
仲春	2월	驚蟄	3월 5~6일	초후 : 복사꽃이 피기 시작하다. (桃始華) 2후 : 찌꼬리가 울다. (倉庚鳴) 3후 : 매가 비둘기로 변하다. (鷹化爲鳩)
		春分	3월 20~21일	초후 : 제비가 돌아오다. (玄鳥至) 2후 : 천둥이 울리다. (雷乃發聲) 3후 : 번개가 처음 치다. (始電)
季春	3월	清明	4월 4~6일	초후 : 오동나무에 꽃이 피다. (桐始華) 2후 : 들쥐가 메추리로 변하다. (田鼠化爲鴛) 3후 : 무지개가 처음 나타나다. (虹始見)
		穀雨	4월 19~21일	초후 : 개구리밥이 생겨나기 시작하다. (萍始生) 2후 : 산비둘기가 날개를 치다. (鳴鳩拂其羽) 3후 : 뽕꾸기가 뽕나무에 앉다. (戴勝降於桑)

위의 내용을 보면 《예기》<월령>과 《여씨춘추》<십이기> 등에서 매월의 물후를 일반적으로 5가지 제시한 데 비해 72후에선 명확히 각 후마다 물후를 한 가지씩 대응시켜 매월 2개의 절기에 모두 6가지 제시하였다.<sup>9)</sup> 그러므로 <월령>이 정령의 성격을 가졌다면 '72후'는 농경 생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물후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텍스트임을 알 수 있다.

72후를 살펴보면 바람이 불고(東風解凍, 濕風至, 涼風至), 비가 오고(大雨時行) 이슬이 내리는(白露降) 기상 현상이 있는가 하면, 꽃이 피고(桃始華, 菊有黃華) 초목이 시드는(靡草死, 草木黃落) 식물의 현상도 있고, 곤충이 나타나거나(蚯蚓出, 螻蟈生) 짐승의 특징적인 행태(鹿角解, 豺祭獸)도 있다. 특히 새가 날아오거나(玄鳥至, 鴻雁來) 울거나(倉庚鳴, 鷓鴣鳴) 울지 않는(反舌無聲, 鷓鴣不鳴) 조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물후 현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물후가 문학작품에 반영된 것은 《시경》에서 이미 보인다. <七月>을 보면 “칠월엔 大火(流星)이 서쪽에서 내려와, 구월엔 겨울옷을 준비하네. 11월엔 매운바람이 불고, 12월엔 기운이 추우니, 옷이 없고 털옷이 없으면, 어찌 한해를 마치리오. 1월에는 보습을 수선하고, 2월에는 쟁기질을 한다네.”(七月流火, 九月授衣. 一之日臠發, 二之日栗烈. 無衣無褐, 何以卒歲. 三之日于耜, 四之日舉趾.)<sup>10)</sup>라 하였고, 이어서 “5월에는 매뚜기가 다리를 움직이고, 6

8) 《逸周書》에선 “立春之日, 東風解凍. 又五日, 蟄蟲始振. 又五日, 魚上冰.”으로 시작하여, 각 절기에 속한 3후를 ‘又五日’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吳澄 撰, 《月令七十二候集解》, 濟南: 齊魯書社, 1997.에서는 각 절기에 속한 3후를 初候, 二候, 三候로 각각 표기하였다. 물후에 대한 점도 문자의 출입이 다소 있는데 예컨대 이 부분은 《月令七十二候集解》에 魚陟負冰으로 되어있다.

9) 예컨대 《禮記》<月令>에서 맹춘에 “東風解凍, 蟄蟲始振, 魚上冰, 獺祭魚, 鴻雁來.”라 하여 5가지를 제시했지만, 《逸周書》에선 맹춘에 해당하는立春과 雨水의 물후를 각 3가지씩 모두 6가지를 제시하였다.

10) 《詩經》<七月>에선 夏曆과 周曆을 혼용하였다. 七月과 九月는 하력이지만, 一之日과 二之日은 주력이다. 때문에 주력을 하력으로 바꾸면 一之日과 二之日은 각각 11월과 12월이 된다. 七月流火는 황혼 무렵 정남향으로 하늘을 보았을 때 대화성이 서쪽에서 아래로 매일 조금씩 내려오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때는 더위가 물러서고 서늘한 기운이 시작되므로 이 천문 현상으로 가을이 시작하는 표지로 삼았다.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은 고대에는 별의 운행으로 농사의 절기를 판단하였다. 顧炎武는 《日知錄》에서 주대 조정에서 火正이란

월에는 배짱이가 날개를 떨치네. 7월에는 들에 있고, 8월에는 창문에 있고, 10월에는 귀뚜라미가 내 침상 아래에 들어오네.”(五月斯螽動股, 六月莎雞振羽. 七月在野, 八月在宇, 九月在戶. 十月蟋蟀入我牀下.)라 하였다.

양한 위진남북조 시기에도 세시와 물후에 관한 글은 꾸준히 지어졌다. 이 시기는 시뿐만 아니라 賦에서도 다루어졌는데, 杜篤의 <祓禊賦>, 曹植과 夏侯湛의 <大暑賦>, 陸機의 <感時賦>, 傅玄의 <歲時賦>, 江淹의 <四時賦> 등이 대표적이다.

### 3. 당대 시인의 物候意識

이러한 전통을 이어 당대 들어 물후를 반영한 詩와 賦는 더욱 많아졌다. 당대 시인들에 있어 물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찰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이었다. 계절과 생태 환경을 물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필자는 ‘物候意識’이라 칭하고자 한다. 당대 시인들은 ‘물후의식’으로 천문과 기상과 동식물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물후의식’은 다음의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1 試帖詩에 나타난 물후

당대 省試와 府試에서 실시하는 과거 시험에서 출제된 試帖詩의 詩題에는 물후 관련 제목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시인들의 물후의식을 촉진시키는 동기가 되었다. 당대의 시문을 《文選》의 방식으로 모은 《文苑英華》를 열람하면, 권180부터 권189까지 省試에 실시된 試帖詩를 모았다.<sup>11)</sup> 여기에는 <원일 온

직책이 있었는데 대화성의 위치를 관측하여 농사의 절기를 확인하는 직책이었다고 한다.

11) 李昉 等編, 《文苑英華》, 北京: 中華書局, 1990.

화한 기운이 널리 퍼지다(元日和布澤) >, <立春>, <입춘날 새벽에 삼소운을 바라보다(立春日曉望三素雲)>, <황제께서 회일을 중화절로 바꾸다(皇帝移晦日爲中和節)>, <상사일에서 청명일까지 연이어 잔치를 열다(上巳連清明遊宴)>, <청명일에 백관에게 새 불씨를 하사하다(清明日賜百寮新火)>, <하짓날 상공께 축수하다(長至上公獻壽)>, <해가 동지에 이를 때(日南至日)>, <동짓날 절후에 순응하여 상서로운 바람이 불다(冬至日祥風應候)> 등 절기 또는 명절을 시제로 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양기가 묵은 음기를 바꾸다(新陽改故陰)>, <팔방의 바람이 律管에 따라 일어나다(八風從律)>, <윤달로 사시를 정하다(閏月定四時)>, <동쪽 교외에서 봄을 맞이하다(迎春東郊)> 등과 같이 계절의 순환과 관련된 제목도 있다. 이들은 모두 네 계절의 순환에 따른 물후와 어느 정도 연관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詩題는 물후와 더욱 밀접하다.

- <물고기가 얼음장 가까이 올라오다(魚上冰)>
- <피고리가 계곡을 나오다(鴈出谷)>
- <나무가 꽃을 피우려하다(木向榮)>
- <반설조가 울음을 멈추다(反舌無聲)>
- <쓰르라미가 우는 나무(寒蟬樹)>
- <칠월에 대화성이 서쪽에서 내려와(七月流火)>
- <이슬이 서리가 되다(白露爲霜)>
- <물이 얼기 시작하다(水始冰)>
- <무지개가 보이지 않다(虹藏不見)>

위의 시제 가운데 <물고기가 얼음장 가까이 올라오다(魚上冰)>는 72후 중 立春의 3후이고, <피고리가 계곡을 나오다(鴈出谷)>는 《시경》<伐木>에 “깊은 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로 옮겨가네.”(出自幽谷, 遷于喬木.)에서 나왔다. <나무가 꽃을 피우려하다(木向榮)>는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나오는 “나무는 즐거이 꽃을 피우려하고”(木欣欣以向榮)에서 유래했고, <반설조가 울음을 멈추다(反舌無聲)>는 72후 가운데 芒種의 3후이다. <쓰르라미가 우

는 나무(寒蟬樹) >는 72후 가운데 立秋의 3후인 “쓰르라미가 울다”(寒蟬鳴)에서 나온 것으로, 당대 沈鵬이 쓴 이 시의 첫 구절 “나뭇잎 하나 처음 떨어지는 날, 쓰르라미는 더욱 쉽게 놀라는구나.”(一葉初飛日, 寒蟬益易驚.)에서 입추의 물후를 가리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칠월에 대화성이 서쪽에서 내려와(七月流火)>는 앞에서 인용한 《시경》<칠월>에서 나왔고, <이슬이 서리가 되다(白露爲霜)>는 《시경》<蒹葭>에 “갈대는 검푸른데, 이슬은 서리가 되었네.”(蒹葭蒼蒼, 白露爲霜)에서 나왔다. <물이 얼기 시작하다(水始冰)>는 72후 중 立冬의 초후이고, <무지개가 보이지 않다(虹藏不見)>는 72후 중 小雪의 초후이다.

이렇게 보면 이들 詩題는 ‘72후’에서 나온 것도 많지만 그밖에 《시경》이나 문학작품에서 유래한 것도 상당수 있다. 물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축적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시제 가운데 馬戴가 844년 과거시험에서 급제했을 때 쓴 <물이 얼기 시작하다(水始冰)>를 보자.

南池寒色動,	남쪽 연못에 한기가 움직이더니
北陸歲陰生.	북쪽 땅에서 연말의 음기가 일어나네.
薄薄流澌聚,	얇디얇은 얼음이 모이더니
滴滴翠激平.	긴 물결이 어우러져 평평해지는구나.
暗沾霜稍厚,	모르는 사이 서리보다 더 두꺼워지고
回照日還輕.	반사가 일어나면 햇빛보다 더 가벼워지네.
乳竇懸殘滴,	걸려있는 종유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하고
湘流減恨聲.	상수(湘水)가 멈추어 한스러운 물소리 줄어들었네.
那堪金井貯,	궁중의 우물에 보관되었다가
會映玉壺清.	응당 옥 항아리를 맑게 비추리.
潔白心誰識,	깨끗하고 하얀 마음 누가 알아주나
空期飲此明.	부질없이 얼음을 먹으며 분명히 알아주기를 바라네. <sup>12)</sup>

이 시의 詩題는 확실히 72후 중의 立冬의 초후를 그대로 하였고, 시인도 얼

12)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92. 권556. 이하의 인용 시들도 출처는 모두 《全唐詩》이다.

음이 얼기 시작하는 계절에 강물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하였고, 그러한 얼음의 쓸모로 마무리 지었다. 일종의 시첩시의 모범을 보여주는 안정된 구도 속에 물후와 형상, 정감과 용도를 적절히 배치하였다. 이는 賦의 구성을 한편의 시 속에 압축한 것과 같다. 시첩시에 다양한 물후 관련 시제가 있는 것을 보면, 당대 시인들에 있어 물후에 대한 인식과 표현은 기본적인 소양이었음을 알 수 있다.

### 3.2 물후의식의 유형화

시인들은 계절과 절기를 언급할 때 곤잘 관련된 물후를 대응시켰다. 시인들은 '物候意識'이 있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현실에서 물후를 실제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끌어와 절기의 물후로 제시하였다. 이를 시작법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율시의 작법에서 出句에 근거하여 對句에서 상관된 내용을 불러오는 방법과 비슷하다. 즉 입춘이라 하면 '동풍이 얼음을 녹이고(東風解凍)', '겨울잠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고(蟄蟲始振)', '물고기가 얼음장 가까이 올라와 헤엄치는(魚上冰)' 정경이 연상되는 것이다. 반대로 동풍에 얼음이 녹으면 입춘을 연상하는 것이다. 때문에 '물후의식'은 표현을 풍부히 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유형화되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시인들은 먼저 눈앞의 자연을 묘사하고 72후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기에 상대적으로 유형화를 피할 수 있었다.

무지개는 예를 들어보자. 무지개는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고, 이를 묘사한 시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물후의 관점에서 보면, 季春의 淸明 때 3후로 '무지개가 처음 나타난다(虹始見)'고 하였고, 이후 孟冬의 小雪 때 초후로 '무지개가 보이지 않게 된다(虹藏不見)'고 하였다. 결국 무지개는 淸명부터 소설까지 약 8개월간 보이지만, 시인들은 나타나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게 되는 두 지점의 계절을 표현하는 기호로 곤잘 사용하였다.

늦봄에 개구리밥이 일찍 생기더니, 해 떨어지고 비가 흩날리누나.

春暮萍生早, 日落雨飛餘.

—董思恭 <무지개(虹霓)>

햇빛을 두르며 비 갠 하늘에 무지개가 솟아오르고, 꽃을 따라 이른 나비 날아 오네.

日帶晴虹上, 花隨早蝶來.

—李嶠 <한식이자 청명일에 왕문에 일찍 나아가 손 가는 대로 쓰다(寒食清明日早赴王門率成)>

무지개가 동녘에 있다가, 소설이 되자 사라졌다.

虹在東方, 小雪而藏.

—李處仁 <虹藏不見賦>

동사공은 <무지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곡우의 초후인 '개구리밥이 생겨나기 시작하다(萍始生)'와 연결되었다. 즉 관련된 내용을 함께 모아 무지개를 형상화하였다. 이교는 제목에서 보이는 한식과 청명과 연관시켜 무지개 이미지를 가져왔다. 이치인은 겨울이 되면서 사라지는 무지개를 제재로 賦를 지었다. 오늘날 우리는 小雪이 되면 무지개가 보이지 않는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대 시인들은 72후를 뚜렷이 인식하였고, 이를 시에 반영하였다. 위 시들에서 시인들이 무지개를 직접 본 체험에 근거하여 노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관련성이 밀접하다는 점에서 물후와 관련된 이미지로 끌어와 사용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물후의 기준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기》와 《일주서》로 하였다. 이러한 기준이 먼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지역이 기준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비교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다른 시간과 공간을 변별해 내는 표지로 기준을 사용할 수 있었다. 즉,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현실의 여러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물후의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풍부해질 수 있었다. 아래의 두보가 지은 시를 보자.

수레를 몰아 석감 아래로 지나가니, 음력 십일월인데도 무지개가 나타나네.  
 驅車石龕下, 仲冬見虹霓.  
 —杜甫 <石龕>

이 시는 두보가 759년 겨울 秦州에서 同谷으로 갈 때 석감을 지나가며 쓴 시이다. 이때 그는 무지개를 보며 원래 孟冬의 小雪부터 무지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虹藏不見) 보이지 않아야 맞지만 십일월 仲冬에도 나타나는 것이 기이하여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청대 沈德潛은 “두보가 ‘음력 십일월인데도 무지개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아마도 촉 지방에서만 무지개와 눈비가 함께 보이는가 보다.”고 하였다.<sup>13)</sup> 이렇듯 시인들은 72후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이와 다를 때 묘사하여 자신이 중원의 고향에서 떨어져 있는 고적감을 나타내었다.

72후를 살펴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러기에 대한 물후가 4번 있다는 점이다.

孟春(1월) 雨水 2후 : 기러기가 북으로 날아가다(候雁北)<sup>14)</sup>  
 仲秋(8월) 白露 초후 : 기러기가 날아오다(鴻雁來)  
 季秋(9월) 寒露 초후 : 기러기의 끝 무리가 날아오다(鴻雁來賓)  
 季冬(12월) 小寒 초후 : 기러기가 북으로 향해 날아가다(雁北鄉)

문자만 봐서는 기러기들이 중복해서 오가는 듯 보인다. 원래 기러기는 북쪽의 한랭한 곳이 거처로 8월과 9월에 중원 지역에 음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북에서 남으로 날아와서 지내다가 12월과 1월에 중원 지역에 양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를 피하여 북으로 돌아간다. ‘기러기가 북으로 날아가다(候雁北)’에 대해 高誘는 《여씨춘추》 주석에서 “평려호(지금의 파양호)에서 와서 북으로 낙양 지방을 거쳐 북쪽의 끝 사막으로 간다.(從彭蠡來, 北過周洛至北極之沙

13) 沈德潛, 《唐詩別裁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杜云‘仲冬見虹霓’, 豈蜀中虹霓與雨雪並見耶?”

14) 《呂氏春秋》<十二紀>와 《列子》<時則訓>에는 ‘候雁北’이라 되어 있고, 《禮記》<夏小正>에는 ‘雁北鄉’이라 되어 있으며, 《禮記》<月令>에는 ‘鴻雁來’라 되어 있다. 《月令七十二候集解》에서는 ‘候雁北’라 되어 있다.

漠也.)”고 하였다. 鄉은 곧 向으로 자신의 거처로 향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거처에서 객지로 오게 되므로 南來라고 하지 南鄉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5)</sup> 賓은 주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어미 새들이 주인에 해당한다면 시차를 두고 날아가는 새끼 새들은 뒤따르는 손님에 해당한다.<sup>16)</sup> 이렇게 보면 8월에 어미 기러기들이 북에서 날아온 후 9월에 새끼 기러기들이 날아오고, 12월에 어미 기러기들이 북으로 되돌아간 후 1월에 새끼 기러기들이 마저 되돌아간다. 기러기는 때를 아는 새로 그 이동에 일정한 규율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절을 파악하는 표지로 사용하였다. 그 대오의 무리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본 데서 고대인들의 관찰이 자세함을 알 수 있다. 결국 기러기는 각각 두 차례에 걸쳐 立秋 이후에 북에서 남으로 날아왔다가 立春 전후에 북으로 돌아간다.

唐詩에는 기러기를 묘사한 시편이 상당히 많아 시인들의 다양한 정감을 볼 수 있다.

동정호 밤 내내 무수히 많은 기러기, 새벽이 밝기 전에 모두 북으로 날아갔네.  
洞庭一夜無窮雁, 不待天明盡北飛.

—李益 <봄밤에 피리소리 들으며(春夜聞笛)>

기러기가 울면서 날아가니, 늦가을에 남으로 갔다가 봄이면 북으로 돌아가네.  
嗷嗷鴻雁鳴且飛, 窮秋南去春北歸.

—韓愈 <우는 기러기(鳴雁)>

다닐 때는 형제 같아 공중에 그림자 이어지고, 봄에 떠나 가을에 오니 제비와 달라라.

行如兄弟影連空, 春去秋來燕不同.

—徐夔 <기러기(鴻)>

위의 시들은 공통적으로 기러기가 가을에 왔다가 봄에 떠나는 모습을 묘사

15) 《月令七十二候集解》：“自北而來南也，不謂南鄉，非其居耳。”

16) 《月令七十二候集解》：“如十二月雁北鄉者，乃大雁，雁之父母也。正月候雁北者，乃小雁，雁之子也。蓋先行者其大，隨後者其小也。此說出晉干寶，宋人述之以爲的論。”

하고 시인의 여러 가지 정감을 덧붙였다. 이익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러기에 비해 자신은 동정호에 떠도는 처지를 대비시켰고, 한유는 무리에서 떨어진 기러기를 노래했다. 서인은 가을 이슬 속을 날아가는 기러기가 제비와 다른 면모를 부각시켰다.

당대 시인들은 기러기가 가을과 겨울 하늘을 날아가며 우는 모습에서 편지, 형제, 친구, 고향, 사신 등 다양한 정감을 기탁하였다. 이때에도 시인들은 가을에 왔다가 봄에 되돌아가는 물후를 잊지 않았고, 그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비유할 수 있었다.

### 3.3 투영된 물후의식

당대 시인들은 물후 현상을 비교적 철저히 믿었다. <월령>과 '72후'는 사실 진한 교체기에 장안과 낙양을 중심으로 관찰한 것으로 그 자연 현상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복사꽃이 처음 핀 날이나 가을에 기러기가 처음 온 날이 작년과 올해 꼭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올해라 하더라도 洛陽과 太原, 成都와 岳陽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도 시인들은 《예기》와 《일주서》에 기록된 내용을 믿었다. 예컨대 立秋인 바로 그날부터 서늘한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였다.

세월은 관대하지가 않아, 절기는 어젯밤에 달라졌네.

日月不相饒，節序昨夜隔.

—杜甫 <입추 다음날 쓰다(立秋後題)>

솔솔 부는 서늘한 바람과 성긴 살쩍, 누가 같은 때 가을이 오도록 맞추었을까?

蕭颯涼風與衰鬢，誰教計會一時秋.

—白居易 <입추일 낙유원에 올라(立秋日登樂遊園)>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닥쳐오더니, 서늘한 바람은 이날 불어오누나.

徂暑迎秋薄, 涼風是日飄.

—孫逖 <입추일 안창사 북산정에 쓰다(立秋日題安昌寺北山亭)>

두보는 입추일 밤에 가을 현상이 나타났음을 말했다. 시는 이어서 “까만 매미는 쉬 없이 울고, 가을 제비는 벌써 손님 같구나.(玄蟬無停號, 秋燕已如客.)”라고 입추의 물후를 나열하였다. 백거이는 입추일에 ‘서늘한 바람’(涼風)이 불어오며 자신의 살쥍도 희어졌다고 탄식하였다. 여기서 ‘서늘한 바람(涼風)’은立秋의 초후인 ‘서늘한 바람이 불다(涼風至)’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는 손적의 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서늘한 바람이 바로 입추날부터 불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인들은 한결같이 입추일 당일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논의할 만한 점이 있다. 하지 후 세 번째 庚日이 初伏이고, 네 번째 庚日이 中伏이며, 立秋 후 첫 번째 庚日이 末伏이다. 이렇게 보면 입추는 三伏 가운데 가장 더운 中伏 기간에 놓여 있게 된다. 때문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맞을 것이다. 실제로 唐詩에는 末伏의 더위를 노래한 시가 많다. 예컨대 백거이는 <대나무 창문(竹窗)>에서 “이때는 삼복의 하늘, 날씨는 끓는 물처럼 뜨겁다.(是時三伏天, 天氣熱如湯.)”고 하였다. 그러나 末伏을 더위의 끝으로 보고 가을과 연결짓는 시들도 많았다.

말복에 가을이 가까운지라, 부채가 점점 멀어짐을 알겠노라.

下伏秋期近, 還知扇漸疏.

—姚合 <광록대부 田卿의 ‘末伏’ 시에 답하며(酬光祿田卿末伏見寄)>

삼복이 끝났음을 비로소 알고 놀라나니, 또 입추의 때를 만나는가.

始驚三伏盡, 又遇立秋時.

—齊己 <新秋>

가을의 절기가 이미 삼복이라, 대화성도 마침 서쪽에서 내려오네.

나무는 새벽이면 가을 이슬을 머금고, 누각은 푸른 가을 하늘 속에 있구나.

가을바람이 북방의 변경에서 불어오니, 삼상한 기운이 神州에 들어오네.

金數已三伏, 火星正西流. 樹含秋露曉, 閣倚碧天秋. 商飈從朔塞, 爽氣入神州.  
 一劉禹錫 <초가을 集賢院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早秋集賢院卽事)>

이렇게 보면 비록 三伏의 더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인들은 초가을의 날씨를 느끼고 이를 더 강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절기에서도 일어난다. 예컨대 立春, 除夜, 元日을 노래한 시에서 더욱 뚜렷하다.

옥 律管이 좋은 절기를 알려주니, 봄날이 이날 시작되는구나.  
 玉律傳佳節, 青陽應此辰.  
 一冷朝陽 <立春>

북두칠성이 돌아 建寅의 정월이 되니, 달력을 보고 봄바람을 살피네.  
 建寅迴北斗, 看曆佔春風.  
 一劉長卿 <원단에 지음(歲日作)>

올해는 오늘 밤 다하고, 내년이 내일을 재촉하누나.  
 추위가 오늘 밤을 따라 가고 나면, 봄은 오경을 따라 오리라.  
 今歲今宵盡, 明年明日催. 寒隨一夜去, 春逐五更來.  
 一王禪 <除夜>

냉조양은 입춘날 봄이 시작된다고 하고, 유장경은 원단에 봄바람을 점치고, 왕인은 제야가 지나면 봄이 오리라 기다리고 있다. 사실 입춘은 24절기의 첫째로 태양력에 따라 정해졌다. 그래서 음력에서 한해의 끝과 시작인 除夜와 元日과는 꼭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오늘날 立春이 2월 3~5일인데 비해 음력 元日은 그 전후로 대략 약 한 달 범위 안에서 매년 달라진다. 그런데도 시인들은 모두 立春, 除夜, 元日을 봄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엄밀히 보면 정확하지 않지만 시인들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를 보면 24절기의 물후가 해당 절기에 정확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것은 <월령>과 '72후' 등 書本 지식으로부터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시인들이 미리 계절의 순환과 관련된 물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 자연

현상을 볼 때, 그러한 물후가 일어날 것만 같고, 설령 눈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이다. 예컨대 삼복인데도 서늘한 바람을 느끼는 것은, 삼복 시기에 더위가 한창인 때도 있고 서늘한 바람이 불 때도 있는데, 이전에 없는 서늘한 바람을 선택적으로 두드러지게 느끼는 감각이기도 하다. 이렇게 책에서 ‘투영된 물후의식’은 당대 시인들에게 있어 물후의식이 얼마나 강하고 선명했는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4. 결 론

본고는 당대 시인들이 계절의 순환과 관련하여 자연현상을 일정한 체계 속에 바라보는 의식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물후의식’이라 명명하여 그 배경을 서술하고 시에 반영된 물후의식을 살펴보았다. 시인들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훨씬 심원하고 다양하지만, 그중에 물후의식은 자연을 하나의 질서 있는 순환으로 인식하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물후는 <월령>에서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다가 24절기와 72후로 점차 발전하였다. 시인들은 밤하늘의 별들의 위치, 바람과 이슬과 천둥 등의 기상, 동물의 활동과 식물의 현상 등을 통해 세시와 절기를 판단하였다. 시인들은 이러한 물후로 다양한 정감을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당대 과거시험에서 내걸린 試帖詩의 詩題에 물후 관련 내용이 많은 것을 보아, 물후는 지식인들의 보편적인 교양으로 보인다. 《文苑英華》는 일부를 선별한 것으로 현존하는 시첩시 전체에서 물후 관련 내용을 뽑는다면 이런 시들이 더욱 많을 것이다. 시인들의 일반적인 시에서도 물후는 곧잘 등장한다. 그들은立夏라고 하면 땅강아지가 우는 걸(螻蛄鳴) 연상했고, 땅강아지가 우는 걸 들으면立夏를 연상했다. 그리고 이어서 ‘지렁이가 땅에서 나오고(蚯蚓出) ‘쥐참외가 나온다(王瓜生)’고 연상하였다. 이러한 한 무리의 현상을 하나의 묶

음으로 이해하였기에, 표현과 인용이 더 풍부하고 원활할 수 있었다. 당대 시인들은 이러한 절기에 따른 물후 현상을 비교적 철저하게 믿었다. 입추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涼風至)'고 하면 당일부터 더위가 가시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믿었다. 이러한 書本으로부터 '투영된 물후의식'에서 그들의 물후의식이 얼마나 강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물후의식은 《시경》의 시인부터 이미 보이며, 兩漢 魏晉南北朝의 시인들에게도 나타나지만, 현실 속에서 풍부한 자료를 제시한 것은 唐代부터이다. 때문에 당대 시인들의 물후의식은 이후 宋元明清 시대에 걸쳐서도 지속되었다. 《古今圖書集成》과 같이 잘 분류된 자료를 가지고 전통시기 지식인의 물후의식을 더 자세하게 전개할 수 있었지만 논의의 집중을 위해서 당대 시인과 그들의 작품으로 한정하였다.

물후의식은 자연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다. 오늘날 일정한 지역에 매년 제비가 날아오는 날을 조사하여 통계를 내는 것은 조류학자의 몫이지만, 고대에는 모든 사람이 농경 활동의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물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소산에서 72후에서 제시하지 않은 동식물에 대해서도 시인들은 물후를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예컨대 일정한 지역에서 처음 연꽃이 피는 날이나 얼음이 처음 어는 날을 시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습관은 당시 속에 쉽게 발견할 수 있다.

#### < 參考文獻 >

- 吳澄 撰, 《月令七十二候集解》, 濟南: 齊魯書社, 1997.  
 李昉 等編, 《文苑英華》, 北京: 中華書局, 1990.  
 彭定求 等編,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92.  
 沈德潛, 《唐詩別裁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楊天宇, 《禮記詁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7.  
 何寧 撰, 《淮南子集釋》, 北京: 中華書局, 1998.

陳奇猷 校釋,《呂氏春秋校釋》,上海:學林出版社,1984.

黃懷信 集注,《逸周書彙校集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7.

梁適 編,《百科用語分類大辭典》,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0.

竺可楨,《天道與人文》,北京:北京出版社,2005.

### < Abstract >

#### A Study on the Phenological Phenomenon Consciousness of the Tang Dynasty Poet and Its Poetic Expression

Kang, Heeahn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Tang Dynasty poet related natural seasons to a natural system in relation to the circulation of the season, and named it "the Phenological phenomenon consciousness"(物候意識). We described the background and examined "the Phenological phenomenon consciousness" reflected in the poem. The poet's gaze on nature is far more profound and diverse, but the Phenological phenomenon consciousness can be one viewpoint that recognizes nature in one orderly circulation. Phenological phenomenon consciousness gradually developed after the 24 solar terms(二十四節氣) and the 72 pentad(七十二候) it began to form systematically at Yueling(月令: climate and phenology in a lunar month). The poet judged the time of the year and the season through the position of the stars in the night sky, the weather such as wind, dew and lightning, the activity of animals and the current state of plants. The poet was able to express various emotions more appropriately, base on phenological phenomenon(物候).

The trial Poetry(試帖詩) in the Tang dynasty imperial examination(科舉考試), related to the phenological phenomena is seen in many titles, The knowledge of Phenological phenomena seems to be universal culture of people. Wen Yuan

Yinghua(文苑英華) is a partial selection, and there may be more cases in which there are phenological phenomenon-related content across the existing Trial Poetry. Even as a poet, phenological phenomenon frequently appears in the poem. Speaking of the Beginning of Summer(立夏), they associate the mole cricket with a cry(螻蛄鳴), and when the mole cricket cried, they associated the Beginning of Summer. Then, earthworms came out of the ground(蚯蚓出), and it was associated with rattmelon coming out (王瓜生). Understanding these groups of phenomena into one bundle made the expression and citation smoother. The Tang Dynasty poets believed in Phenological phenomenon in response to such seasons relatively thoroughly. If "Cool winds are coming"(涼風至) in the Beginning of Autumn(立秋), they believe that the cool winds will be blowing in which the heat from the day will subside. With such "projected Phenological phenomenon consciousness" you can know how deep their Phenological phenomenon consciousness is.

Key words: Phenological phenomenon(物候), Phenological phenomenon consciousness(物候意識), Yueling(月令), 24 solar terms(二十四節氣), 72 pentad(七十二候).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 7. 31.	2019. 8. 8.	2019. 8. 10.	2019. 8. 27.	2019. 9. 30.

